

간세포암 환자의 간조직내에서 p53 단백질발현  
: 면역조직 화학염색법에 의한 관찰

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 교실  
이종민\*, 김중혁, 김용범, 김학양, 박충기, 유재영

목적: 간세포암의 발생과정에 관여하는 p53 암억제유전자는 변이가 생기면 간조직내에서 p53 단백질 발현되어 손상된 세포의 세포분열 정지나 자연세포사를 일으키는 정상적인 숙주반응이 억제된다. 본 연구는 간세포암환자에서 면역조직 화학염색법으로 간조직내 p53 단백질 발현율과 p53 단백질 발현이 예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관찰하고자 하였다. 방법: 간세포암으로 진단받고 간동맥색전술등 내과적 치료나 외과적 간절제술을 받은 22예를 대상으로 면역조직 화학염색법(LSAB kit; Dako Corporation, Carpinteria, CA)으로 p53 단백질 발현을 조사하였다. 결과: 1. 면역조직 화학염색법으로 측정된 간세포암 환자의 간조직내에서 p53 단백질 발현율은 40.9%였다. 2. p53 단백질 발현군과 비발현군간에 평균 나이 및 성별, 간세포암의 원인, 종양의 최대직경, 개수, 간경변증 동반여부, Child-Pugh분류, 치료, 생존일등에 따른 차이는 없었고 p53 단백질 발현군이 비발현군보다 4개월 생존일이 짧은 경향을 보였다(55% vs 76%,  $p = 0.29$ ). 결론: 간세포암 환자의 간조직내 p53 단백질 발현이 예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대상군과 양군간의 동일한 치료방법, 오랜추적기간이 필요하며 전향적 연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.

A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의 발현율에 대한 역학적 조사  
(전투경찰 대상으로)

국립경찰병원 내과

차주영\*, 전종구, 안민집, 소연,  
김영중, 박병익, 조민구, 이권진

A형 간염은 각 집단의 보건 위생 및 경제·사회적 수준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. 우리나라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의 발현율에 대한 역학적 연구는 1979년 홍동에 의해 서울지역에서 처음으로 조사가 실시되었고, 그 이후에 전북 서북부 지역과 경인 지역 등에서 연구되었는데,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.

저자들은 사회적으로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 전투경찰을 대상으로 A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의 발현율을 알아보고자 전국적으로 근무중인 전투경찰, 총 853명을 대상으로 IgG anti-HAV(HAVAB; Abbott)을 검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.

결과 1. 연령별 발현율은 19세에서 10.6%, 20세 17.4%, 21세 28.9%, 22세 31.3%, 23세 40.2%, 24세 50.8% 분포였다.

2. 출신 지역별 분포에서는 전라지역과 제주지역에서 각각 31.5%, 53.8% 동이었고, 나머지 지역에서는 23.8% ~ 27.8% 였다.

3. 입대 후 복무 기간에 따른 분포에서는 입대 후 3개월 이내인 경우 12.2%, 1년 경과한 경우는 31.8%, 2년 경과한 경우는 50.0% 였다.

4. 전체적으로는 853명 중 224명(26.2%)이 양성을 보였다..

결론적으로, 전체적인 발현율은 보건위생 및 경제·사회적인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고, 연령별 분포에서는 20대 초반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, 지역적으로는 전라도와 제주도에 타 지역에 비해 높은 분포양상을 보였고, (제주도의 경우 모집단 수가 13명임) 입대 후 발현율의 증가추세를 보이는데, 이는 집단생활의 영향으로 사료된다.